

‘시니어 스마트 데이’,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는 전국적 스마트폰 교육 캠페인

✎ 배정환 기자 | ⓒ 승인 2022.09.22 09:57 | □ 21면



시니어 스마트 데이_경남 사천시 정동면

시니어 스마트 데이”(이하 캠페인),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다. 풀어쓰면, ‘시니어(노인)들이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날’이다. 캠페인은 2014년부터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은 노인들이 많지만, 교통·통신 인프라의 부재로 정규 과정으로 교육받기 힘든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인구소멸지역인 남해군이 캠페인의 시작점이었다. 경남 남해군과 인근 도농 복합 도시인 사천시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주도하고, 교육자료 등을 연구하는 단체가 지방정책연구소 청춘어람이다. 정세준 연구소장은 삼성생명,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작년 12월 지역 청년 활동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니어 스마트 데이는 '마을 자체'를 스마트 기기 교육의 장으로 꾸민다. 수강생들이 특정 장소로 찾아가거나, 강사들이 수강생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다. 익숙한 마을 행사처럼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존의 스마트폰 교육은 전문 강사와 수강생으로 극명히 나누어졌다. 이에 따라, 소수의 전문 강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수강해야 했다.

하지만, 지방정책연구소 청춘어람에서 제작한 교안과 교육자료는 스마트폰 초심자도 쉽게 숙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마을 지도자(마을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를 중심으로 함께 배우는 상호작용 속에서 친근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규모는 경남 남해군을 기준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마을당 평균 10명 정도로 진행된다.

정세준 연구소장은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만 보아도, 노인 대상 스마트폰 강의는 고도의 강의기술이나 지식정보의 전달보다는 수강생들과의 소통, 반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캠페인의 진행 경과 사례를 제시했다.

마을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이나 마을 청년들은 대부분 마을의 노인에 비해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가 높다. 이들은 실제 보수적 특징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바라보기에 외부인이 아닌, 손자, 아들, 친구의 자녀 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한 소통도 실시간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농·어촌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통의 한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디지털 전환기', '디지털 정보 격차'와 같은 이슈성을 가진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도 커 활동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소감문도 공개했다.

스마트폰 강사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 코로나-19로 1년간 만나지 못했던 손주를 '영상통화 써보기' 교육을 통해 만나게 된 할머니의 눈물 등 교육 과정에서의 일도 공유했다.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